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2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등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확한 '만 2년'이라는 골든 타임, 즉 더 깊은 죽음과 성숙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안과 어려움을 자초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림'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Life as a Glove: Letting Christ Work Through You

Passage: Genesis 25: 1-6 (ESV)

Date: November 8, 2026

Pastor: Dong Suk Chung

By the time Abraham was 100, he could no longer have children. His wife Sarah was also too old to get pregnant, yet Isaac was born because of God's promise. God's Word is fulfilled when human effort runs out.

Then God commanded Abraham to sacrifice Isaac on Mount Moriah. When Abraham obeyed without delay, God stopped him and responded,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and poured out great blessings. Abraham thought his life was over at 100, but God was just getting started with him. After Sarah died, he took Keturah as a wife, fathered six more sons, and lived until 175.

This story does more than tell of one man's miracle. It points ahead to the age of grace. Mount Moriah represents the cross where Jesus would later die as a sacrifice for us. Believing in Jesus does not mean that since He died for me, I can live however I want. Because my sin and death were transferred to Jesus, His death on the cross is also the death of my old self with Him and the resurrection of my new life in Him. As the apostle Paul says in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This is the very purpose for which God made human beings, and it is the living worship He accepts.

Think of a glove. A glove has no power by itself. It only shows what the hand inside can do. In the same way, believers are empty gloves. God did not save us just so we could live a better life based on our own efforts. He came to live in us so people could see Him through us. But if we keep pushing our own plans, wishes, and worries, Christ has no room to work. Only when we set down our own efforts and give up, does the Lord within us begin to work for Himself.

Remember when Peter and the disciples struggled in the storm? They relied on their experience and skill, while Jesus slept on the boat. But the storm only got worse. It was only when they realized they were helpless and cried out to Jesus that He calmed the sea with one word. Many of us live that way. We try to fix our health, family problems, and money troubles. But these worries belong to the fallen, earthly "old self". Trying to fix everything by ourselves only makes us more stressed. When we stop trying to fix everything ourselves and turn to Jesus, He brings peace to the storm.

Knowing this changes how we handle problems and how we pray. True Christian prayer does not beg God to grant the wishes of an old self that has already died. Jesus taught us how to pray with the Lord's Prayer. It is saying "amen" to God's promises and asking for His will to be accomplished in and through us. It centers on spiritual nourishment, unity within the church body through mutual forgiveness, and the fulfillment of God's Kingdom on earth.

The hard times we face are not meant to destroy us. Just as God parted the Red Sea and struck the rock to bring out living water, He leads us in ways beyond our understanding. The same is true of problems at work or at home. People who treat us unfairly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tools God has placed in our lives to show us the old self still alive in us, so we can crucify it to the cross. When we see this truth, forgiveness finally comes, and we stand together as one church.

The life of a believer follows a spiritual order: as the spirit prospers, we prosper in all things and are in good health. Matthew 6 says not to worry about what we will eat or wear, but to seek God's kingdom first, and He will take care of the rest. God promises in Psalm 92:14 that those who follow Him will still bear fruit in old age and stay lively and strong. We should believe in these words and not be deceived by our changing circumstances, thoughts, or emotions. Believers are called to feed daily on God's Word, confess His truth with confidence, and speak words of life and blessing over their families and workplaces. When we crucify our worldly thoughts and our own selfish judgments to the cross, and when God's Word becomes our own character, we will enjoy His abundant life every day. Then the Lord's victory and blessing will be seen in our lives and families.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11월 22일 2026년 NASUNGCHURCH.ORG 134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5장 1절~6절

날짜: 11월 8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었으나, 오직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은 곧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신의 인생이 다한 줄 알았으나 이후 75년을 더 살아 175세를 누렸고,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 그두라를 후처로 맞아 또다시 여섯 아들을 낳는 초자연적인 강건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인물의 기적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은혜와 믿음의 시대를 보여주는 신앙적 그림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자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없는 은혜를 힘입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 즉 나 자신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날마다 죽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나타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자 받으시는 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죄와 사망이 예수께로 옮겨졌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위해 내 육신의 소원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까닭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참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장갑이 손의 실제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듯이, 성도는 자신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품과 실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내 자신과 육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부 경험을 의지해 애쓰던 베드로가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듯이, 가정 문제나 개인의 시련, 질병 등의 모든 고통은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 때 계속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이므로, 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쳐 평생 가보지 못한 길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다가오는 불의한 압박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옛 육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보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연출된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가 임하고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역시 개인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 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영적인 질서를 따릅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는 약속처럼, 우리는 환경이나 느낌, 감정에 속지 말고 오직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육신의 판단을 십자가로 보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되어 역사하도록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삶과 가정에는 주님의 승리와 축복이 매일 같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설교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새교우록을 배부하기 위해 필요한 인쇄 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 소속되지 않은 교우 중에 교우 수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남녀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6년 선교회 결산보고서를 12월 13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2027년도 교회달력이 로비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금주 11월 26일과 27일 (목, 금)은 Thanksgiving Day 주간으로 교회 사무실은 닫습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박철세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최귀순 전도사 (81세)
뇌경색과 경미한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순옥 집사 (한나선교회)
척추에 실금이 가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이시용 장로 (모세회)
패혈증 후유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암수치도 상승한 상태.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장로 (라스베가스)
직장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병길 형제 (제2남선교회)
낙상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정헌 형제 (제1남선교회)
간암 진단으로 면역치료를 준비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